
권 두 언

다가오는 미래 50년을 위한 식품 및 영양 분야의 초석이 되는 한해였기를 바라며...

총무운영위원 이 희 섭 (부산대 교수)



2021년은 우리 학회 창립 50주년이라는 부담감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술대회 직전까지도 마음을 졸였던 길고 긴 한해이기도 하지만, 이제까지의 학회 활동기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한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학회의 반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해인만큼 정기학술대회와 50주년 기념식을 위해 많은 분들의 노고와 노력 덕분에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식품과 영양에 맞춤형 입히다(Tailored to Fit: Food & Nutrition in New Era)”라는 주제 하에 3개의 기조강연, 학술대상 수상강연, 4개의 International Session, 3개의 분과 세션, 신진과학자 발표세션, 5개 세션의 포스터 구두발표, 2개 세션의 대학원생 구두발표, 2개 세션의 제품개발경진대회 및 일반 세션을 포함하여 총 50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술대회 기간 동안 총 2,300여 분이 참석해 주셔서 5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학술대회를 빛내주셨으며, 학술대회 기간 동안 학회 회원님들의 학회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회원분들과 학술대회의 개최에 후원해주신 후원사 분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식품산업과 영양’은 식품산업과 영양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회원 및 관련 기관에게 제공하여 산·학·연·관 간 교류의 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산업지로 제26권 2호에서는 ‘ESG와 식품산업’이라는 주제로 최근 기업의 경영방향에 있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와 식품산업에 대한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으며, 3편의 산학연 논문 및 창업과 기술사 시험 성공 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산업지의 발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애써 주신 저자분들과 편집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우리 학회를 “학술활동 우수학회”로 선정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상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이는 올 한해의 단순한 활동에 따른 수상이라기보다는 50년간의 모든 회원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쌓여서 생긴 결실로 판단되며, 모든 회원분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고 미래 50년의 식품과 영양을 선도하는 학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